

##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 되나

‘저비용 고효율’ 역량 있지만  
국제대회 흥행 우려 목소리  
대구시의회, 개최동의안 유보  
홍준표 대구시장 부정적 입장  
광주시의회도 신중론 형성  
‘스포츠 달빛 동맹’ 암초 만나

‘달빛동맹’ 광주시와 대구시의 ‘2038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를 통한 ‘국제 스포츠 도시 도약’의 꿈이 암초를 만났다.

대규모 국제 대회 특성상 양 개최 도시의 결속과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한 축인 대구시의회는 과도한 비용과 효율성 등을 문제로 제동걸고, 양 지역 시민사회는 계획 재검토 및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 완벽하게 차별화한 국제 대회 경험과 지역내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국제대회 유치가 적절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는 지난해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성사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다.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운영비 6077억원, 시설비 4739억원 등 1조 81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비 3246억원(30%), 지방비 4593억원(42%·광주 2213억원, 대구 2380억원), 사업수입 2978억원(27.5%) 등이다.

46억 아시안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OCA 회원 45개국, 1만여 명이 40여개 종목에 참가하는 세계 메가스포츠 대회다.

대회 개최에 따른 전국 생산유발액 4조 2221억원(광주 1조 4040억, 대구 1조 4497억), 부가가치유발액 1조 9508억원(광주 6834억, 대구 7234



수능 한 달 앞... 간절한 엄마의 기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30여일 앞둔 17일,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억), 취업유발인원 4만3819명(광주 1만6506명, 대구 1만8423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전망하고 있다.

양 도시는 올해말까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3년 문체부와 기재부 심의에 이어 2024년 OCA(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다.

양 도시는 그동안 굼뚱뚱한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 경험 등을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 광주와 대구는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에서, 2015년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했다. 또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2019년에는 광

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러내는 등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다. 특히 광주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15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까지 냈다.

다만 일부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과거 인천하계 아시안게임에서 시설비 등으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지출한 사례 등을 들어 ‘대회의 가성비’가 있느냐는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대회 유치를 위한 첫 공식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공동 유치 동의안’을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하고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지만, 18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면서 일부 신중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이날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유보 됐고,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마저 무산될 상태다.

민선 8기들이 광주시장과 대구시장 모두 바뀐 점도 변수다. 일부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임기 내 빛을 줄여 특·광역시 중 최저 채무비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아시안게임 유치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 모두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다양한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대부분의 경기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개최 역량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장보고 고장’ 완도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복합해양문화시설 1245억 투입

해상왕 장보고의 고장 완도에 1200억원 규모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7일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완도군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국비 1245억원을 투입해 전남지역에 4만2500㎡ 규모로 전시·체험·교육관, 연구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는 해수부로부터 대상지 선정 용역을 의뢰받은 뒤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7개 후보 지자체를대상으로 ‘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대상지 선정 용역’을 진행해왔다. 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완도군은 건립지 요건, 입지의 적합성, 지역 발전성, 해양수산 자원 현황 등을 감안한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완도의 경우 완도를 장좌리 일대 완도군 소유 5개 부지(4만 5368㎡)를 대상지로 추천하면서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유적, 미래산업인 해양치유센터와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한 시너지 발전 가능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 해상국립공원과 슬로시티를 포함한 해양문화공간 등을 강조한 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시·군들은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관광·해양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특별유치단을 꾸리고 서명운동, 캠페인에 나서고 평가자료 작성을 위해 명절 비상근무까지 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쏟아냈다.

전남도는 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광, 해양수산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로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4일 보성·신안·완도 3개 군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진상규명 첫 발 댄 여순사건 ▶6면

굿모닝 예향-사투리, 문화콘텐츠 부활 ▶18·19면

KIA 타이거즈 2022 시즌 결산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